

21세기 향한 열린 마당되길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사람’에 대해 ‘가치관’에 대해 ‘삶의 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시간을 이리저리 쪼개어 짬을 내지만 쉴 수 있는 겨를이 없고 쉬임없이 이동하지만 머무를 곳이 없다. 이런 현대인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 ‘인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는 현대문명의 하수구로 변해가고 있고 거대한 공장의 굴뚝으로 탈바꿈해 사람의 사고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경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간의 탐·진·치로 즉 지구에 대한 가없는 착취를 이제라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인간과 더불어 몰락해버리고 말겠다는 조짐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사이 우리는 질서를 외면한 채 결과만을 우선했고 환경을 외면한 채 개발에만 몰두해왔으며 삶의 질을 도외시한 채 경쟁으로만 치달려 왔다. 게다가 허리가 잘리워진 민족은 돌아보지도 않는 채 이쪽 저쪽 눈치만을 살피며 냉전 경쟁에만 매달려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결과 냉전의 당사자들에게는 냉전이 해소되었어도 우리에게도 아직도 유일의 소유물로 남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물 안 개구리 신세로 매몰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 두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오늘의 세기적 전환기는 단순히 역사 속의 시간적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도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까지 인간을 지배해 온 인간에 의한 문명과 사고에 대한 가치관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좁게는 한민족 역사 이래 조선 봉건시대, 일제강점시대, 군사독재시대 이후 처음일지도 모르는 지방자치 전면실시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넓게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들도 포착되고 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산업지상주의와 냉전체제는 국경없는 21세기를 맞으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며 존중받고, 존엄성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

전환기를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은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휴머니즘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가올 21세기는 자연에 관련된 사람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마음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체계에 대해 새로운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에게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환경문제, 삶의 질 문제, 민족문제 따위에 대해 되새김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마당은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다.

아무쪼록 환경전문지의 특성을 살린 《환경공업신문》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제끼는 자세로 제 할일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